

리포트

1



# 정유시장 개방과 기업의 대응

하 영 원  
〈서강대 경영대학 교수〉

이 자료들은 지난 11월 4일 서울 KOEX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국에너지법연구소 주최 세미나에서 발표된 내용을 옮긴 것이다. 〈편집자註〉

기업의 대응전략을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 1. 머리말

WTO체제의 출범과 함께 전 세계의 거의 모든 제품이나 서비스의 교역이 영향을 받게 되었다. 이에 석유류 제품도 예외가 아니어서 우리나라의 정유산업은 대외개방에 따른 영향을 받게 될 것이고, 그 영향의 크기를 미리 가늠해 보고 이에 대응하는 정부와 기업의 전략을 생각해 보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개방에 따라 정유산업의 기회와 위협요인을 분석해 보고 이에 대비한 정부와

## 2. 대외개방에 따른 정유산업의 기회와 위협요인

### (1) 기회요인

세계 교역질서를 규율하는 기본규범이 GATT에서 WTO체제로 이행하면서 상품과 서비스의 교역에 각국의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들게 되므로 우리 기업들의 상품수출에는 궁극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석유류 제품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석유류 제품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품질상으로는 경쟁력이 있으나 주요 석유제품가격이 국제시세를 상회하는 편이므로 두드러진 수출의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 않는다. 다만, 96년 3월 日本의 特石法폐지에 따라 우리나라로부터 휘발유, 등유, 경유의 수입에 관심을 갖게 될 가능성이 있다.



기업들이 품질상으로는 경쟁력이 있으나 주요석유제품의 가격이 국제시세를 상회하는 편이므로 두드러진 수출의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는다.

다만 1996년 3월로 예고되어 있는 日本의 特石法 폐지에 따라 石油元賣會社들이 우리나라 정유회사들의 휘발유, 등유, 경유의 수입에 관심을 갖게 될 가능성을 점쳐볼 수 있을 것이다.

## (2) 위협요인

외국의 기업에게 정유시장이 개방된다고 하더라도 외국의 정유회사들이 우리나라에 정유시설까지 갖추면서 시장에 진입하기에는 입지, 환경규제 등 많은 난관이 있으므로 실현가능성은 높지 않은 편이다. 그러나 시장의 크기로 보나(1993년 기준 13조 5천억원) 성장률(1993년 기준 14%)로 보나 우리나라의 석유류시장은 외국계 석유회사에게 매우 매력적인 시장임에 틀림없으므로 어떤 방법이든 우리나라 석유시장에 침입을 원하는 기업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계 기업들 중에서 지금 현재 자본 참여를 하고 있는 CALTEX, 아람코, 이외에 국내시장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은 로얄 더치 쉘을 비롯하여 BP, 프랑스의 토탈社 및 싱가포르에 정유시설을 갖고 있는 엑슨등이다.

이들이 우리나라의 석유시장에 진입할 때 채택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전략은 석유유통업으로의 진출이다.

3·14조정 명령, 주유소 간격제한 등의 규제가 폐지 또는 완화되기는 하였으나 아직도 국내 정유사들의 석유유통 장악력이 매우 취약한 상태에서 외국의 정유회사들이 월등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유통업자들에 대한 저리 외상 지원등을 시행할 경우 빠른 속도로 유통망이 와해 될 가능성이 있다.

또 한 가지의 위협요인은 우리나라 국내의 석유류 제품가격이 정부통제가격으로 휘발유 등 소수유종이 국제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국내정유사는 이를 소수유종의 판매로 전체원가를 회수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같은 가격 구조 때문에 수출입업자의 입장에서는 소수유종에 대한 arbitrage의 기회가 항상 존재하며, 이를 활용하기 위한 "Hit & Run"식의 석유수입업자가 다수 출현할 가능성이 상존한다.

따라서 국내유종별 수요 및 수요구조 분석을 바탕으로 적정 생산 및 판매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국내정유사로서는 투자수익에 대한 불확실성의 증가로 인해 투자욕이 저하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고도화시설 투자가 부진할 경우 우리나라 정유산업의 국제경쟁력이 낮아지며 장기적인 석유제품 수급의 불균형이 초래될 수 있다. 또한 환경정책의 추진도 어려움에 부딪치게 될 가능성이 있다.

국민 경제적인 입장에서 보더라도 공급능력 과잉인 상태에서의 무분별한 석유제품의 수입을 허용하는 것은 설비의 유향화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며 석

지금까지 정유업계의 투자나 제반 경영활동이 전적으로  
이윤동기에 의해서 이루어져 왔다면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기업이 져야 하겠으나 국민경제적 입장에서의 석유수급 안정이라는 대명제 아래  
정부의 규제하에 운영되어온 산업이므로 게임의 규칙을 바꾸어가는 과도기에는  
단계적인 접근이 절실하게 요망된다.

유제품의 소비자들이 향유할 수 있는 가격상 또는 품질상의 이익은 단기적이고 그 크기 또한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지금까지 정유업계의 투자나 제반 경영활동이 전적으로 이윤동기에 의해서 이루어져 왔다면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기업이 져야 하겠으나 국민경제적 입장에서의 석유수급 안정이라는 대명제 아래 정부의 규제하에 운영되어온 산업이므로 게임의 규칙을 바꾸어가는 과도기에는 단계적인 접근이 절실하게 요망된다고 하겠다.

### 3. 대외개방에 대한 정부와 기업의 대응

#### (1) 정부의 대응

대외개방에 대비한 지금 현재 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는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되지만 앞서 언급한 이유들 때문에 정유업의 완전한 대외개방에 이르기까지는 몇 개의 단계를 거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첫째, 가격자유화를 통해 국내 석유정제 생산자들의 가격경쟁력과 가격운용의 탄력성을 배양하여 국제제품시장과 비슷한 수준까지 끌어올리면서 단계적으로 수출입의 자유화를 추진하고,

둘째, 그 같은 전제조건이 달성된 다음 정제업 및 유통업에 대한 국내자본 진입을 자유화하고, 그 다음

단계로서 완전한 대외개방을 성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자유화·개방화를 추구하는 WTO체제 하에서는 정부의 특정산업에 대한 직·간접적인 보조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시장기능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의 기초하에 시장실패(*market failure*)의 가능성이 높은 분야. 예를 들면 환경(탈황시설등), 석유비축의무 수행을 위한 비축시설등에서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정부의 역할이 매우 긴요하다고 하겠다. 특히 강조되어야 할 점은 가격자유화를 비롯한 정부의 규제완화 스케줄이 속히 가시화되어 기업의 불확실성을 제거시켜 주는 일이다.

#### (2) 기업의 대응

정유산업의 대외개방에 대비한 우리 기업들의 대응은 유통망의 장악을 위한 노력에 더하여 소비자들의 필요를 정확히 알아내어 제품품질과 서비스의 제고를 통해 차별화 하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유소 쟁탈전이나 사은품 경쟁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획기적인 마케팅 전략이 아쉬운 실정이다.

정부의 가격자유화 정책과 발맞춘 가격경쟁력 제고 및 가격의 탄력적 운용능력 배양도 대외개방에 대비하여 힘써야 할 분야인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고 할 것이다. ♣